

대구지역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us and Influential Factors of Dating Violence in Daegu

박 영 주*

차 례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일반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

• 국문요약 •

최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구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를 유지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가해 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행동통제, 정서적 통제, 신체적 통제, 성적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행동통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의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행동통제와 경미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인의 음주는 행동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음주는 성적폭력을 유

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어릴적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의 가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지역의 데이트폭력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동통제 및 정서적 폭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볼 때,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의 전반적 폭력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며, 아동기나 청소년기 유대감이나 사회활동,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기통제력을 높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데이트폭력,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가정폭력, 자기통제력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여성정책팀장

I. 서론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모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의 약 30%이상과 폭력범죄의 40%이상은 타인이 아닌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¹⁾ 이렇듯 잘 알고 있는 사람간의 폭력 중에서도 최근 연인 또는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사회는 그동안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인식하였으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정도 용인되었고, 형사사법기관도 연인 사이의 문제로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²⁾

그 결과 데이트폭력은 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때리거나 숨지게 하기도 하며,³⁾ 춘천에서는 결혼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⁴⁾ 대구의 경우에도 여자친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흥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 하면,⁵⁾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202-203쪽.

2) 박영주,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2018, 3쪽

3) KBS 뉴스, “이별 통보에 폭행·협박...급증하는 ‘데이트폭력’”, 2018. 11. 2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2448&ref=D>(2018. 12. 4. 검색).

4) chosun.com 사회, “범인 얼굴 공개하라...‘예비신부 살인사건’ 어머니의 분노”, 2018. 11.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3/2018110301125.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2018. 12. 4. 검색\).](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3/2018110301125.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2018. 12. 4. 검색).)

친구를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⁶⁾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대구출신의 메이저리거인 야구선수가 여자 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⁷⁾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폭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까지 이르지 않거나 혹은 형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하기 쉽지 않고,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더라도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데이트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 실태파악의 필요성으로 인해 경찰에서는 2016년 2월부터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였고, 112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구분하기 시작하였다.⁸⁾ 그러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식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에 맞추어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지는 못하였고, 원인에 관한 연구와 대책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5) 매일신문, “돈 가로채고 흥기 위협, 데이트폭력 40대 실형”, 2018. 1. 20, <http://news.imaeil.com/NewestAll/2018012000511956142>(2018. 10. 8. 검색).

6) 경향신문, “결별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경찰 추적중”, 2014. 12.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71026521&code=940202(2018. 10. 8. 검색).

7) 매일신문, “대구 출신 10대 메이저리거 ‘데이트폭력’ 피소”, 2018. 5. 1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1440&yy=201(2018. 10. 8. 검색).

8)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8, 경찰대학, 2018, 139쪽.

물론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논쟁, 법적 정비의 요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실태분석 연구는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⁹⁾ 최근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데이트폭력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폭력발생 기간도 폭넓게 인정하여 과거 다수의 데이트 경험 과정에서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데이트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데이트폭력 피해가 과다측정 될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서울시 실태조사의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의 데이트폭력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과거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최근 1년 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포함하였음)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가해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구지역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데이트를 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데이트폭력이 유형별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밝혀, 데이트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9)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7, 77-105쪽.

10) 강희영,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Ⅱ. 일반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실태

데이트폭력의 개념은 학자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Puig¹¹⁾와 Marshall and Rose¹²⁾는 구혼기 학대(courtship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데이트 하는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미혼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³⁾ 국내의 연구로 최지현은 데이트폭력을 ‘미혼 남녀가 낭만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정서적, 신체적 행동 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¹⁴⁾ 한편,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2006년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애인의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사례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후 제도적 결혼관계가 아닌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폭력관계를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한 바 있다.¹⁵⁾

11) Puig, A., “Predomestic strife : A growing college counse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5 No.3, 1984. pp. 268-269.

12) Marshall, Linda L., Patricia Rose,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Courtship Abu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66 No.9, 1988, pp. 414-418.

13) Leake, B., Nyamathi, A., Gelberg, 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dical care, Vol.35 No.8, 1997, pp. 747-755.

14) 박하나·장수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영향요인-피해여학생과 가해남성의 음주문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제3권 1호,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2012, 33-52쪽 재인용.

그리고 경찰실무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을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연인간 폭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¹⁶⁾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경찰에서 집계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등을 중심으로 피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범주에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폭력과 함께 행동통제(controlling behaviors)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더불어 행동통제까지도 폭력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¹⁷⁾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폭력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행동을 제약하는 통제, 정서적·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을 포함한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를 데이트폭력이라고 보았다.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CTS-2¹⁸⁾를 사용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측정하고 있다.¹⁹⁾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물리적·유형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물론 데이트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 상대를 통제하기 위

15) 송경인·이한결, 2017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토론회, 대구여성의전화, 2017, 5-72쪽.

16) 경찰청,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계획”, 경찰내부자료, 2017.

17) 이화영,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2014.; 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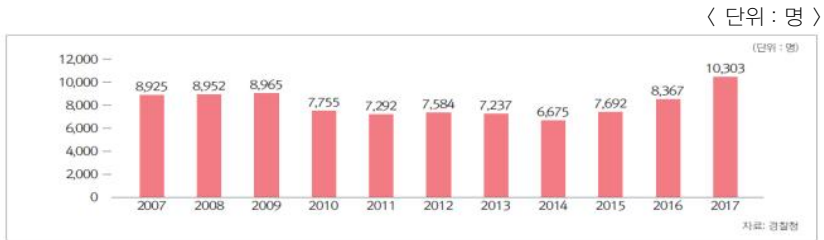
18)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 갈등척략척도2.

19) 박하나·장수미, 2012, 앞의 글.

한 억압적 행위까지 데이트폭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통제는 상대방의 일정을 통제하거나 옷차림을 제한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손이나 흉기로 때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며, 성적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행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한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관련하여 공식통계상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데이트폭력 피의자 현황을 파악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2007년 8,925명에서 2009년 8,965명으로 증가한 후 2014년 6,675명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7년 10,30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여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데이트폭력 발생현황(피의자 현황)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응하여 경찰은 2016년부터 데이트폭력 TF를 구성하여 데이트폭력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데이트폭력 발생현황을 지역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7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10,303명이었고, 이 중 폭행과 상해로 인한 피의자는 7,55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포·감금·협박 피의자는 1,189명, 살인(미수포함)은 67명, 성폭력은 138명, 경범 등은 1,357명이 검거되었다. 전체적으로 경찰이 처리한 데이트폭력은 폭행과 상해의 비율이 73.3%로 높았으며, 이 중 살인의 비율도 0.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심각한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7년 247건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이트폭력의 2.4%가 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7명의 데이트폭력 피의자중 살인(미수포함)이 5건으로 전체 데이트폭력 유형의 2.0%로 상대적으로 데이트폭력 중 살인의 비율이 높았고, 체포·감금·협박의 경우도 16.6%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표 1〉 데이트폭력 현황 (전국, 대구)

(단위 : 명, %)

구분	연도	합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미수포함)		성폭력		경범 등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2016년	8,367	6,233	74.5	1,017	12.2	52	0.6	224	2.7	841	10.1	
	2017년	10,303	7,552	73.3	1,189	11.5	67	0.7	138	1.3	1,357	13.2	
서울	2016년	2,818	2,166	76.9	284	10.1	12	0.4	77	2.7	279	9.9	
	2017년	2,336	1,714	73.4	247	10.6	13	0.6	26	1.1	336	14.4	
부산	2016년	442	353	79.9	52	11.8	1	0.2	15	3.4	21	4.8	
	2017년	590	469	79.5	50	8.5	4	0.7	17	2.9	50	8.5	
대구	2016년	223	150	67.3	51	22.9	1	0.4	5	2.2	16	7.2	
	2017년	247	160	64.8	41	16.6	5	2.0	2	0.8	39	15.8	
인천	2016년	794	598	75.3	100	12.6	3	0.4	8	1.0	85	10.7	
	2017년	749	551	73.6	97	13.0	3	0.4	7	0.9	91	12.1	
광주	2016년	233	180	77.3	22	9.4		0.0	13	5.6	18	7.7	
	2017년	457	353	77.2	46	10.1		0.0	3	0.7	55	12.0	

구분	연도	합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미수포함)		성폭력		경범죄 등 기타	
대전	2016년	517	373	72.1	38	7.4	5	1.0	18	3.5	83	16.1
	2017년	585	443	75.7	46	7.9	4	0.7	19	3.2	73	12.5
울산	2016년	271	229	84.5	36	13.3	1	0.4	4	1.5	1	0.4
	2017년	373	266	71.3	40	10.7		0.0	4	1.1	63	16.9
경기남	2016년	1,106	781	70.6	161	14.6	15	1.4	25	2.3	124	11.2
	2017년	1,886	1,403	74.4	204	10.8	13	0.7	9	0.5	257	13.6
경기북	2016년	412	279	67.7	74	18.0	3	0.7	10	2.4	46	11.2
	2017년	771	548	71.1	92	11.9	9	1.2	12	1.6	110	14.3
강원	2016년	239	185	77.4	18	7.5		0.0	8	3.3	28	11.7
	2017년	335	248	74.0	34	10.1	2	0.6	3	0.9	48	14.3
충북	2016년	205	151	73.7	36	17.6	1	0.5	5	2.4	12	5.9
	2017년	153	106	69.3	25	16.3	3	2.0	2	1.3	17	11.1
충남	2016년	144	102	70.8	21	14.6		0.0	1	0.7	20	13.9
	2017년	336	249	74.1	45	13.4	1	0.3	4	1.2	37	11.0
전북	2016년	164	129	78.7	19	11.6		0.0	6	3.7	10	6.1
	2017년	283	220	77.7	39	13.8	2	0.7	2	0.7	20	7.1
전남	2016년	93	54	58.1	19	20.4	4	4.3	1	1.1	15	16.1
	2017년	162	97	59.9	25	15.4	2	1.2	14	8.6	24	14.8
경북	2016년	175	122	69.7	28	16.0		0.0	3	1.7	22	12.6
	2017년	288	199	69.1	43	14.9		0.0	3	1.0	43	14.9
경남	2016년	422	309	73.2	40	9.5	5	1.2	24	5.7	44	10.4
	2017년	652	467	71.6	93	14.3	6	0.9	11	1.7	75	11.5
제주	2016년	109	72	66.1	18	16.5	1	0.9	1	0.9	17	15.6
	2017년	100	59	59.0	22	22.0				0.0	19	19.0

한편, 여성긴급전화 대구 1366의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였다. 1366의 연간 상담건수에서 데이트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0.46%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1.28% 그리고 2017년은 29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2.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대구 1366 데이트폭력 실태

(단위: 건)

연도	구분	연간 상담건수	데이트폭력
2015년		11,721 (100%)	55 (0.46%)
2016년		12,446 (100%)	160 (1.28%)
2017년		13,655 (100%)	291 (2.13%)

자료 : 대구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 정보공개요청(2018. 3. 15.)

2.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 및 선행연구 검토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부모의 양육 태도와 행동을 자녀가 보고 배우며 자라면서 성장과정에서의 폭력은 물론 데이트 관계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아동은 부모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그들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었을 경우 성인이 되어 데이트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 외부로 표현되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폭력에 대한 허용성이 높을 경우에도 데이트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²⁰⁾

특히, 서경현 등(2001)은 폭력에 대한 허용을 데이트폭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²¹⁾ 신소라(2017)의 연구에서도 폭력허용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신소라의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이 폭력허용도를 매개로 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한다고 밝혔다.²²⁾ 즉, 갈등상황에서 이러한 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을 인정할수록 데이트폭력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통제력은 Gottfredson and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 강조된 개념으로 자기통제력은 부모의 훈육을 통해서 어린시절에 형성되어 일생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비행이 유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²³⁾ 이 후 Bursik & Grasmick 등(1993)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나타내는 징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첫째, 충동성으로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즉각적인

20) 서경현 외,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제2권 제1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75-97쪽; 김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6호, 2009, 135-159쪽.

21) 서경현 외, 앞의 글, 75-97쪽.

22) 신소라, “가정에서의 방임과 성적 학대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1호 (통권 제66호), 2017, 28쪽.

23) Vazsonyi & Klanjsek,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Strata”, Justice quarterly, Vol.25 No.1, Taylor & Francis, 2008, pp. 101-131; Cochran, J. K., Wood, P. B., Sellers, C. S., Wilkerson, W. & Chamlin, M. B. “Academic Dishonesty and Low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Theory of Crime”, DEVIANT BEHAVIOR, Vol.19 No.3, TAYLOR & FRANCIS LTD, 1998, pp. 227-256; Chapple, C.L., “Self 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Vol.22 No.1, 2005, pp. 89-106.

쾌락과 보상을 선호하고 욕구충족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하다. 둘째, 단순한 일추구이다. 계획이나 지적 투자가 필요없는 활동이 선호된다. 셋째, 위험추구이다. 위험한 행동에 대한 흥미는 가치가 있는 반면, 안전하고 신중한 활동은 지루할 것이다. 넷째, 육체적 활동이다. 육체적 노력이 지적 활동보다 선호된다. 다섯째, 자기중심성이다. 낮은 자기통제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이익에 둔감하고 자신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 여섯째, 발끈한 성미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낸다.²⁴⁾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데이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폭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아존중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Coopersmith는 자신 스스로 능력 있고,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⁵⁾ 그리고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기존중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⁶⁾ 이러한 개념

24) Grasmick, H. G., Hagan, J., Blackwell, B. S., Arneklev, B. J. , “Risk Preferences and Patriarchy :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 Social forces , Vol.75 No.1, 1996 , pp. 177-200; 황의갑 외, 범죄학 : 범죄원인론, 형사정책, 범죄발생의 최근경향, 그린, 2011, 357-360쪽; 허경미,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게임 중독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 사이버 게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2호 (통권 제55호), 2014, 265-294쪽.

25)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cico : Freeman., 1967; 김진희,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5쪽 재인용.

2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최연숙 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들을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기를 믿는 자신감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O'keefe & Medway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²⁷⁾ 한편, 자아존중감은 데이트폭력의 대처방식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최연숙 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 인식 및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의 적극적 대처방식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을 막고, 적극적 대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자아존중감이 낮다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데이트관계에 있는 친밀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또한 폭력발생 시 그 대처방식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기가 쉬울 것이다.

폭력 인식도는 어떠한 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어떤 행동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그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폭력인식도가 높을 경우 그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기에 폭력을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²⁸⁾

제21권 제1호, 2017, 25쪽 재인용.

27) O'Keefe, DJ., Medway, FJ, "The application of persuasion research to the school psychology context", J School Psycho. 35, 1997, pp. 173-193; 최연숙 외, 앞의 글, 24쪽 재인용.

한편, 약물과 음주는 데이트폭력에서 자주 거론되는 영향요인이다. 특히 음주행동은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Wolfgang(1958)의 음주와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살인자, 강도, 폭행자의 상당수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에서 음주를 많이 한 만큼 적개심이 증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³⁰⁾ 따라서 음주는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성행동, 데이트폭력 중에서도 성관련 문제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는 폭음과 같이 음주량이나 음주횟수가 커지면 데이트폭력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³¹⁾

한편 서경현(2003)은 한국사회에 통용되어 있는 “음주 후 자신의 행동에 책임 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은연중에 학습하므로 술에 취해 있을 때 폭력을 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이 손상되면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를 하는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데이트폭력의 가해가능성과 피해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³²⁾

이처럼 데이트폭력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28) 최연숙 외, 2017, 앞의 글, 31쪽.

29) 박하나·장수미, 2012, 앞의 글, 37쪽 재인용.

30) 조미숙, “가정폭력 가해자의 알코올중독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3권 제1호 통권4호, 2002, 103쪽.

31) NIAAA, 2003; 박하나·장수미, 앞의 글, 33-52쪽 재인용.

32) 서경현·이경순,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 7권 3호, 2002, 353-368쪽; 박하나, 장수미, 앞의 글 37쪽 재인용.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제시하여 특히, 어떠한 요인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유형별로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유형별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과거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최근 1년 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포함하였음)을 대상으로 이들 사이의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사와 온라인/모바일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손문숙(2016)의 연구와 강희영(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³³⁾ 그리고 데이트폭력의 원인과 관련하여 폭력 허용성, 자기통제력, 가정폭력 경험 및 음주경험 등은 손문숙(2016), 이충환(2016), 박영주(2017), 홍태경(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³⁴⁾

33) 강희영,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2016.

우선, 폭력에 대한 인식도는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 ‘연인과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하는 것’,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끼는 것’, ‘흥기로 위협하는 것’, ‘원하지 않는 섹스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 등에 5개 문항을 각각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4점으로 서열화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폭력 허용성은 ‘연인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할 경우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교제 중 바람을 피우면 뺨을 맞아도 싸다’, ‘사랑이 깊거나 질투가 심하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등 5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4점으로 서열화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나는 당장 이익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등 6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으로 서열화하여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등 3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서열화하여 측정하였다.

- 34) 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2016.; 이충환,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사회자본의 영향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사용하여” 교정복지연구, 제43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119-141쪽.; 박영주, 대구지역 가정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2017; 홍태경,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와 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호 제2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491-520쪽.

한편, 어릴 적 가정폭력 경험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상 호간의 관계에서 경험한 욕설, 체벌, 폭행 등을 포함한 8가지 행동의 유무를 측정한 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음주정도와 연인의 음주정도를 서열화하여 측정하였다. 본인의 음주정도와 연인의 음주정도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 1점에서 '일주일에 4회 이상 마시는 것'을 5점으로 서열화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은 통제행동 6개 문항, 정서적(경제적 폭력 포함)폭력은 9개 문항, 신체적 폭력 11개 문항, 성적 폭력 10개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위해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과거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최근 1년 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포함하였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기혼자의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서 3개월 이상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또는 과거 데이트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최근 1년 내에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600명 남성이 400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이기에 20대가 데이트 관계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8.3%, 30대가 32.1%, 40대 이상은 9.6%가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은 38.6%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 이성의 유무 및 연애기간을 보면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85.6%이며,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 연인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4.4%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데이트 관계에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1년 미만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5.7%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미만이 25.8%, 2년 이상이 24.1%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 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여성	600	60.0
	남성	400	40.0
연령대	20대	583	58.3
	30대	321	32.1
	40대 이상	96	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386	38.6
	전문대 졸업	74	7.4
	대학교 졸업	503	50.3
	대학원 이상	37	3.7

구 분		응답 수	비율	
연애기간	현재연인	1년 미만	357	35.7
		1-2년	258	25.8
		2년 이상	241	24.1
	과거연인	1년 미만	47	4.7
		2년 이상	97	9.7
결혼 상태	유배우자		22	2.2%
	미혼		968	96.8%
	이혼		9	.9%
	사별		1	.1%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조사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베리맥스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같은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폭력 허용성은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사랑이 깊거나 질투가 심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연인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등 4개 문항이 사용되었고, ‘교제 중 바람을 피우면 뺨을 맞아도 싸다’의 경우 같은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폭력 허용성의 경우 요인적재량은 .75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864로 높았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밌다.’,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위험하고 짜

릿한 활동을 즐긴다.’, ‘나는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등의 6문항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량이 .51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759로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등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요인적재량은 .900이상이며, 신뢰도는 .922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인식도는 ‘흥기로 위협만 하더라도 폭력이다.’,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은 폭력이다.’,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끼면 폭력이다.’ 등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은 폭력이다’, ‘연인과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하는 것은 폭력이다’는 같은 요인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폭력 인식도의 요인적재량은 .801이고, 신뢰도는 .844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개념	내용	요인적재량	분산기여율	신뢰도
폭력 허용성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862	18.327	.864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851		
	사랑이 깊거나 질투가 심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829		
	연인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759		

개념	내용	요인 적재량	분산 기여율	신뢰도
낮은 자기통제력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746	17.177	.759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밌다	.727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699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679		
	나는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613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514		
자긍심	나는 내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30	16.487	.922
	나는 내가가 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90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900		
폭력인식도	흥기로 위협만 하더라도 폭력이다	.842	14.655	.844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은 폭력이다	.829		
	연인의 말에 위협과 모욕을 느끼면 데이트 폭력이다	.801		

종속변수는 <표 5>와 같이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경미), 신체적 폭력(심각) 그리고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통제행동은 휴대폰, 이메일 등을 점검하는 행동 등 6개 문항, 정서적 폭력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치는 행동 등 6개 문항, 신체적 폭력은 흥기 등을 가지지 않고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가해행동과 흥기 등을 가지고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가해행동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성적폭력은 원하지 않는 애무 등 5개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전혀 없다’ 1점, ‘1년에 1-2번’ 2점, ‘1달에 1-2번’ 3점, ‘1주에 1-2번’ 4점, ‘거의 매일’ 5점 순으로 구성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507이상이며 신뢰도는 .687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 종속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개념	내용	요인 적재량	분산 기여율	신뢰도
통제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713	12.004	.725
	써클이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703		
	누구와 함께 있는 지 항상 확인했다	.673		
	웃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661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했다	.532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522		
정서적 폭력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이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775	14.618	.800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754		
	죽이겠다거나 기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710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706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648		
	안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사용했다	.507		
신체적 폭력 (경미)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아프게 찌른적이 있다	.840	11.090	.826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776		
	발로 찬 적이 있다	.730		
	팔목이나 내몸을 힘껏 움켜잡거나 밀친 적이 있다	.660		
신체적 폭력 (심각)	칼(가위)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833	9.200	.771
	칼(가위)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796		
	폭행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713		
성적 폭력	원하지 않는 애무를 한 적이 있다	.718	10.775	.687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영당이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700		
	원하지 않는 섹스를 강요 한 적이 있다	.697		
	연인의 기분을 상관하지 않고 키스를 한 적이 있다	.678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667		

3. 조사문항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는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여성은 600명(60%), 남성은 400명(40%)을 조사하였다. 평균연령은 27.7세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음주 정도와 연인의 음주 정도는 ‘전혀 마시지 않았다’ 1점에서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4회 이상’ 5점으로 ‘5점 척도’로 서열화하여 평균점수를 제시하였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상호간 8가지 문항의 가정폭력 행동(자녀에게 욕설이나 심한 말, 손바닥이나 종아리 체벌, 손이나 발로 찌,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 방임, 부모 상호간 욕설, 폭력, 허리띠 등을 이용한 폭력 등)의 유무를 측정하여 경험한 경우의 합을 측정하였고, 평균은 1.62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 인식도와 폭력 허용성, 낮은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등의 독립변수와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경미) 폭력, 신체적(심각) 폭력, 성적 폭력 등의 종속변수의 경우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값을 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요인값의 평균을 나타냈기에 평균은 0으로 제시되었다.

〈표 6〉 조사문항의 기술통계

구분	개념	빈도	평균	표준편차
독립	성별	1000	남성 400명, 40.0% 여성 600명, 60.0%	-
	연령	1000	27.7	6.8
	본인음주	1000	2.3	.86
	연인음주	1000	2.3	.91
	폭력인식도	1000	0	1

구분	개념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폭력허용성	1000	0	1
	낮은 자기통제력	1000	0	1
	자아존중감	1000	0	1
	가정폭력	1000	1.62	1.75
종속	통제	1000	0	1
	정서적 폭력	1000	0	1
	신체적 폭력(경미)	1000	0	1
	신체적 폭력(심각)	1000	0	1
	성적 폭력	1000	0	1

4.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대구지역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지난 1년간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한 폭력 행동을 살펴보면,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의 경우 38.4%가 가해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는 31.3%,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했다’ 22.8% 순으로 행동통제의 가해경험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비교적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과도한 집착이나 언어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으로 전개되는 것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의사나 행동에 통제를 가하는 행위 역시 폭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통제의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적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22.4%로 가장 많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으며,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7.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이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도 12.1%로 나타나 가해경험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가해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거나 밀친 적이 있다’는 4.2%가 가해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중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는 0.7%가 가해경험이 있었다.

한편 성적 폭력의 경우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의 경우 5.5%로 가해경험이 있었으며, ‘연인의 기분을 상관하지 않고 키스를 한 적이 있다’의 경우에도 3.3%로 가해경험이 있었다.

〈표 7〉 데이트폭력 가해실태

개념	내용	빈도	명	%
통제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점검했다	1,000	313	31.3
	써클이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1,000	133	13.3
	누구와 함께 있는 지 항상 확인했다	1,000	384	38.4
	웃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1,000	234	23.4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했다	1,000	228	22.8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1,000	112	11.2
정서적 폭력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이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000	121	12.1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1,000	60	6.0
	죽이겠다고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1,000	17	1.7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000	53	5.3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000	170	17.0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1,000	224	22.4

개념	내용	빈도	명	%
신체적 폭력 (경미)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아프게 찌른적이 있다	1,000	27	2.7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1,000	23	2.3
	발로 찬 적이 있다	1,000	29	2.9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거나 밀친 적이 있다	1,000	42	4.2
신체적 폭력 (심각)	칼(가위)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1,000	6	0.6
	칼(가위)등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1,000	7	0.7
	폭행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1,000	5	0.5
성적 폭력	원하지 않는 애무를 한 적이 있다	1,000	16	1.6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1,000	55	5.5
	원하지 않는 섹스를 강요 한 적이 있다	1,000	17	1.7
	연인의 기분을 상관하지 않고 키스를 한 적이 있다	1,000	33	3.3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1,000	23	2.3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형별로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데이트폭력 유형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인 통제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인이 음주를 많이 할수록 연인의 행동을 제한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연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강요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중 무엇보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에는 여성일수록, 폭력허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고, 가정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경미한 폭력은 여성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가해경험이 많았으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일 경우에는 폭력인식도가 낮을수록 가해경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 폭력의 경우에는 음주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폭력인식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정리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높았다.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점을 고려하면, 젊을수록 데이트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젊을수록 만남이나 모임이 많을 수 있고, 데이트를 자주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높았는데, 이처럼 낮은 자기통제력과 폭력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 충동적이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어렵기에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통제력인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낮아 상대방에게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거나 만나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을 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도 높았는데,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성을 보인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다. 어릴 때 가정폭력 경험은 폭력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폭력에 대한 허용성이 높아지게 하며,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대화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폭력 인식도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폭력에 대한 인지력이

낮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만 성적폭력의 경우에는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지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폭력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흥기로 위협하거나,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을 찍거나 나체사진을 찍는 것, 연인의 말에 모욕을 느끼는 것 등이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 또는 사회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인식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낮다. 즉, 폭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폭력임을 알기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이론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학습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것이 폭력이며 잘못된 행위임을 아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 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폭력임을 인지시키는 폭력 민감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성적 폭력을 가하는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성적 폭력의 경우 다른 폭력유형과는 음주가 주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본다면, 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폭력 인지도 보다는 잠재되어 있던 과거 가정폭력의 경험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어릴 적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되면서 성적

폭력을 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국사회에 통용되어 있는 음주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책임 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은연중에 학습한 결과 술에 취해 있을 때 성적 폭력을 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결과 데이트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한편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데이트폭력 영향요인

구분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미)		신체적 폭력 (심각)		성적 폭력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337* (.162)		-.263 (.166)		.432* (.172)		.052 (.173)		-.337* (.171)	
남성	-.057 (.065)	-.028	-.143* (.066)	-.070	-.084 (.068)	-.041	.058 (.069)	.029	.028 (.068)	.014
연령	-.023*** (.004)	-.157	.005 (.005)	.032	-.011* (.005)	-.076	-.004 (.005)	-.029	.004 (.005)	.024
본인 음주	-.039 (.038)	-.033	.032 (.039)	.028	.034 (.041)	.029	.011 (.041)	.009	.099* (.040)	.085
연인 음주	.134*** (.037)	.122	-.017 (.038)	-.015	-.065 (.039)	-.060	.024 (.039)	.022	-.049 (.039)	-.045
폭력 인식도	.053 (.031)	.053	-.016 (.031)	-.016	.029 (.033)	.029	-.088** (.033)	-.088	.093** (.032)	.093
폭력 허용성	-.048 (.030)	-.048	.096** (.031)	.096	.055 (.032)	.055	.034 (.032)	.034	.020 (.032)	.020
낮은 자기 통제력	.202*** (.031)	.202	.183*** (.032)	.183	.090** (.033)	.090	-.006 (.033)	-.006	.053 (.032)	.053
자기 존중감	.042 (.030)	.042	-.034 (.031)	-.034	-.055 (.032)	-.055	-.020 (.032)	-.020	-.034 (.031)	-.034
가정 폭력 경험	.064*** (.018)	.111	.097*** (.018)	.169	-.010 (.019)	-.017	-.024 (.019)	-.042	.071*** (.019)	.124
N	1000		1000		1000		1000		1000	
R2	.130		.088		.027		.015		.040	

V. 결론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지역 데이트폭력의 가해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과거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최근 1년 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포함하였음)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행동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통제행동과 정서적 폭력이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해비율이 높았다. 특히, 행동 통제의 경우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 중, 38.4%가 경험한 바 있으며, 정서적 폭력을 경험 한 비율도 22.4%나 되는 등 우리사회에 이러한 유형의 폭력이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행동을 통제하거나 욕설 등에서 시작하여 심각한 폭력으로 전개됨을 고려할 때, 비교적 경미할 지라도 폭력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행동통제와 경미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인의 음주는 행동통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스로 음주를 많이 할수록 성적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19세 이상의 성인인 점을 고려하면, 데이트 관계에 있더라도 젊을수록 만남이나 모임이 많을 수 있고, 데이트를 자주하게 되면서, 상호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미한 신체폭

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음주를 할 경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폭력 인식도에 있어서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폭력의 경우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는데, 폭력인식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은 가하지 않는 반면 성적폭력은 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데이트폭력의 가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대부분의 데이트폭력 유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릴 적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 경험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성장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유대감이나 사회활동,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기통제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을 통해서 폭력없는 사회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구지역 가정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한 이 연구는 대구지역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년 동안의 유형별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전국적 실태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사이에서의 데이트폭력이 분석되지 못한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논문접수 : 2018. 11. 4, 심사개시 : 2018. 11. 18, 게재확정 : 2018. 12. 11.〉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희영,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 김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6호, 2009.
- 박영주,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2018.
- 박영주, 대구지역 가정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2017.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 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2016.
- 송경인·이한결, 2017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토론회, 대구여성의 전화, 2017.
- 신소라, “가정에서의 방임과 성적 학대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한국공인행정학회보, 제26권 제1호(통권 제66호), 2017.
- 이화영,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2014.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8, 경찰대학, 2018.
- 황의갑 외, 범죄학 : 범죄원인론, 형사정책, 범죄발생의 최근경향, 그린, 2011.

2. 논문

- 김진희,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하나·장수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영향요인-피해여학생과 가해남성의 음주문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제3권 1호, 2012.
- 서경현 외,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제2권 제1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 서경현·이경순,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2002.
- 이충환,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사회자본의 영향연구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사용하여” 교정복지연구, 제43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 조미숙, “가정폭력 가해자의 알코올중독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3권 제1호 통권4호, 2002.
- 최연숙 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제21권 제1호, 2017.
- 허경미,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게임 중독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 사이버 게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인행정학회보, 제23권 제2호 (통권 제55호), 2014.
-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3권 2호, 2017.
- 홍태경,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와 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호 제2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3. 기타

- 경찰청,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계획”, 내부자료, 2017.

- 경향신문, “결별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경찰 추적중”, 2014. 12. 7.
- 매일신문, “돈 가로채고 흉기 위협, 데이트폭력 40대 실형”, 2018. 1. 20.
- 매일신문, “대구 출신 10대 메이저리거 ‘데이트 폭력’ 피소”, 2018. 5. 19.
- Chosun.com 사회, “범인 얼굴 공개하라...‘예비신부 살인사건’ 어머니의 분노”, 2018. 11. 3.
- KBS 뉴스, “이별 통보에 폭행·협박...급증하는 ‘데이트폭력’”, 2018. 11. 27.

II. 국외문헌

- Chapple, C.L., “Self 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Vol.22 No.1, 2005.
- Cochran, J. K., Wood, P. B., Sellers, C. S., Wilkerson, W. & Chamlin, M. B. “Academic Dishonesty and Low Self-Control :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Theory of Crime”, DEVIANT BEHAVIOR , Vol.19 No.3, TAYLOR & FRANCIS LTD, 1998.
-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cico : Freeman., 1967
- Grasmick, H. G., Hagan, J., Blackwell, B. S., Arneklev, B. J. , “Risk Preferences and Patriarchy :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 Social forces , Vol.75 No.1, 1996.
- Leake, B., Nyamathi, A., Gelberg, 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edical care, Vol.35 No.8, 1997.
- Marshall, Linda L., Patricia Rose,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Courtship Abu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66 No.9, 1988.
- O’Keefe, DJ., Medway, FJ, “The application of persuasion research to the school psychology context”, J School Psycho. 35, 1997.

- Puig, A., "Predomestic strife : A growing college counse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5 No.3, 1984.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Vazsonyi & Klanjsek,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Strata", Justice quarterly, Vol.25 No.1, Taylor
& Francis, 2008.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us and Influential Factors of Dating Violence in Daegu

Park, Young-Ju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dating violence and to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which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For these purposes, the data, in this study, were used from 1000 adults who have dated for more than 3 months in Daegu.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types of dating violence were classified into behavior control,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e violence of behavioral control was the most frequently occurred type of dating violenc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examining the significant determinant factors among variables has found that age, violence of behavior control and physical violence(light) affect to the involvement of dating violence. Otherwise, the lovers' drinking behavior is a significant factor causing the behavioral control. Drinking behavior also significantly increases sexual violence. And low self-control and domestic violence victimization in childhood are consistently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causing dating violence.

Although, in Dae-gu, the actual condition of dating violence is not serious, behavior control and emotional violence are somewhat worrying. In addition, the result has shown that dating violence is highly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nd self control so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of increasing self-control and not to be exposed of domestic violence. For this, we conduct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sense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and personal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o increase self-control.

◆ Key words : dating violence, behavioral control,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elf-control